

김 전복 제치고 전남 1등 수산물 됐다

올해 생산량 38만t·생산액 4560억원 전망

김이 전복을 제치고 전남 1등 수산물로 올라섰다. 특히 올해는 작황도 좋고 가격도 올라 양식어민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김 생산액이 456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3997억원보다 14.1% 증가한 것으로, 그동안 전남 수산물 1위였던 전복(3500억원 예상)을 제치고 전남 1등 수산물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생산은 2016년산(전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량은 33만2000t, 2017년

산 34만8000t으로 증가했고, 올해(2018년 산)는 38만t 생산이 기대된다.

이달 들어 바다 수온이 15~17도로 떨어지면서 김의 초기 성장에 적합한 수온이 유지돼 생산량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작황이 좋으면 가격은 하락하지만 김값은 반대로 고공행진 중이다.

김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전남도는 전했다.

최근 산지 물김 가격은 kg당 평균 1148원으로 최근 3년간 58% 올랐다. 2014년에

는 730원, 2015년 790원, 지난해 1049원이었다.

김이 돈 되는 품목으로 인식되면서 김 양식시설도 올해 3.9% 늘었다.

김 수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가운데 수출액 2위 품목인 김은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수출액이 4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아직 2개월

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3억5000만달러)와 비교해 42.9%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은 참치로, 지난해 7억6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송원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2024년께 10억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양식어장 신규 개발, 품종 개량, 품질 고급화 등으로 김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고소득 김 양식 증대를 위해 신규 어장을 확대·개발하고, 새우·해삼·가리비·조기 등 새로운 소득품종 양식을 확산해 2020년 양식 생산 2조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지역 사회경제적기업

매출 30%↑·고용 30%↓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지원 때 고용확대 최우선 고려해야

전남지역 사회경제적기업들의 매출이 30%가량 증가했는데 고용인원은 되레 30%가량 감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사회경제적 기업 지원에 고용 확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목포1)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전남도내 사회경제적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사회경제적 기업은 1005개소다. 2015년 768개소에서 2년새 30.8%(237개소) 늘어났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987억원에서 28.8%(284억원)이 늘어난 127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인원은 2015년 5474명에서 29.2%(1597명) 줄어 3877명으로 나타났다. 1개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이 7.

12명에서 3.8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매출액 증대는 기업들의 자생력 확대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전남도와 시·군의 공공구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공구매액은 2015년 142억원에서 2017년 상반기에만 29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이는 전체 사회경제적기업의 매출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성휘 의원은 “사회경제적기업의 수와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고용인원은 되레 감소했다. 이는 사회경제적기업들의 영세성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사회경제적 기업의 지원 때는 고용 확대를 우선 고려하고 자생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신설 불승인 장성군 결정 정당”

광주지법 판결

고려시멘트가 낸 레미콘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은 장성군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고려시멘트가 낸 레미콘공장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시멘트는 지난해 9월 30일 레미콘공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장성군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기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레미콘공장이 신설되면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주거와 생활 환경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을 들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고려시멘트는 이에 불복,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추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지난 9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존의 환경검토에 더해 이 레미콘공장의 가동으로 새로운 환경영향에 가중돼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매우 나빠질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와관련, 입장을 내고 “고려시멘트는 장성군과 법적인 분쟁을 지속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여수 관광 활성화...음식점·숙박업소 크게 늘었다

1년 새 각각 9.4%·9% 증가

여수의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관광 활성화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지역 음식점은 8391곳으로 지난해(7668곳)보다 9.4% 증가했다.

숙박업소도 62곳에서 108곳으로 74%가 늘었고, 민박도 457곳에서 507곳으로 9% 증가했다.

올해 신규영업허가·등록·신고는 지

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건이 많은 2494건이 접수됐다.

영업장 확장 등 등록사항 변경 신청 수도 9% 증가한 473건으로 집계되는 등 관광 관련 업소 민원이 전반적으로 많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시설기준 확인 기간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3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여 처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내장산 단풍 구경 오세요” 전남·북 유명 산과 사찰이 온통 울긋불긋한 색(色)으로 뒤덮였다. 내장산 일주문에서 내장사에 이르는 단풍 터널은 12일 108그루의 단풍 나무들이 그려놓은 풍경을 보려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다. 내장산 단풍은 잎이 작고 진한 빛이 특징으로, 애기 손바닥만큼 앙증맞아 ‘애기 단풍’으로 불린다. 고향 문수사를 둘러싼 단풍도 놓치지 아쉬운 가을 풍경이다. <정읍시 제공>

전북도, 탄소 기업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심의절차 진행

전북도가 탄소 기업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성된 ‘탄소심의위원회’를 가동, 이달부터 탄소 기업에 대한 심의절차를 본격 진행한다.

탄소심의위원회는 도내 탄소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전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탄소기업의 정의를 탄소기술을 이

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 중 전북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으로 명시, 탄소 기업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탄소 기업이 탄소소재로 만든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지, 다른 완제품에 들어가는 탄소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탄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지원 남북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다.

전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해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과 기업 관계자 공청회 등을 거쳐 탄소 기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탄소소재생산기업, 탄소소재부품생산기업, 탄소제품 생산기업, 탄소소재 재활용 기업 등 4가지 유형을 탄소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금형설비, 직조장비, 성형장비, 화학수지 등을 생산하는 기업도 탄소소재부품 생산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강도 등 기능성 보장 없이 단순히 외관만 차별화하기 위해 탄소소재를 덧붙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은 탄소기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소 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탄소 기업으로 관리되는 123개 기업도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탄소 기업 심의·지정을 받아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원도 익산면 득암리 바다집 2481㎡ 팬션·별장적합 2억4천
- 순창군 인계면 감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도당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양틀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소방도코너 대지 93㎡ 주택 94㎡ 가계 2칸과 집 1억2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2천
- 서동 제일파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10전환 4억

투자·매도·교환

- 담양 청평면 소재지 대지 10235㎡ 요양병원 등 최적 30억
- 함평읍 물머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기능적합 6억2천
- 완도군 금당면 가회리 땅 2013㎡(609평) 조용한 생활에 적합 하루에 여객선 4회다닐 육지에서 40분 3300만원
- 양계장 허가부지 장흥읍 15000㎡ 축사허기도 있음 6억9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땅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상가건물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230만원씩
- 북구 용봉동 아파트단지 입구 땅 1026㎡ 상가 1538㎡ 49억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물 997㎡ 병원·사육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가게 27평, 2층 원룸1, 투룸2, 3층 안집 27평 은행1억 매도 5억46천(임대가능)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북구 본촌동 공장·창고 적합 1300여평 분할가능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물 971㎡ 27실 6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송정리 부동산 매물

-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 투자가치의 3개소
- ▶ 11억, 12억, 19억
- ▶ 각 코너 위치
-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 대형부지 (만오천평)
-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닝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